

No.	국가명	기부 현황
1	캄보디아	해외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SDO와 CSO의 관계는 좋지 않고 정부에 대체적으로 의존하는 편이다.
2	일본	10년 전에 받기 시작한 고향사랑세가 근래 떠오르기 시작했다. 원 목적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목적과 의도 자체는 좋지만 지자체는 '기부'의 의미를 살짝 벗어나 기부자에게 '보답'을 하려고 해서 기부자로 하여금 대가를 바라게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실패했다.
3	말레이시아	아직도 SDO에 대한 신뢰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4	홍콩	문화, 사람들, 그리고 정부가 필란트로피에 우호적이다. 필란트로피 섹터에 줄 자원이 있을 정도로 고액자산가들이 많다. 홍콩 정부는 필란트로피를 홍보하며 조세제도 또한 기부를 장려한다. 한편으로는 작은 비영리단체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마케팅에 쏟아야 하고 정부 산하 SDO는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다. Ruth 코멘트: Chat GPT는 스스로를 홍보하는 방법을 Top 10 리스트업 했다. 한 번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5	파키스탄	기업 기부는 2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 조사를 한 결과, 개인들의 SDO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들이 기부를 해야 하고 어디에 기부금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는다. 정부는 점점 더 긴박하게 규제하려 하며, 명성을 갖고 신뢰를 얻고 있는 SDO를 찾을 뿐이다, 중소기업의 SDO는 규제와 저조한 기부금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기부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때문에 파키스탄에서의 SDO 역할은 훨씬 중요하다. 문제를 더 얘기하자면,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어서 기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6	미얀마	코로나19로 인해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SME 등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SDO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마저도 미얀마를 떠나고 있다. 해외로부터 미얀마로 돈을 들여오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다.
7	네팔	INGO, NGO, CVO로 불리는 다양한 "SDO"들이 있다. 70%의 기부금이 해외 기부이기 때문에 현재는 좋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단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이 줄어들어 많은 이슈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국내 기부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네팔에도 초고액자산가가 많기에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부도 기부를 장려하고 있고 단체들이 사회에 돌려주도록 감사를 시행한다.
8	방글라데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되고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도 선진화의 길목에 서있다. 기부에 대한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DGI 조사가 방글라데시에겐 좋은 기회이다.
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이다. 이슬람 필란트로피에서 현재 캡처되는 것은 디지털 모금이다. 다양한 사업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란트로피에서의 장애물은 정부에서 1961년에 제정된 제도가 새롭게 개정되었다는 것인데, 매달 전월에 대한 기부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Ruth 코멘트: 우리는 무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가책을 느끼는 위치에 있다.
10	싱가포르	기업 산하 SDO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SDO한테 요구하는 것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지이다. 또한, 기업이 기부를 할 때, '기부금'이 아닌 grant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도 기부를 장려하기 때문에 250%를 기부자에게 돌려준다. 정부가 장려하여 기부자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고, 일대일 매칭기부를 해줄 정도이다. 기부자는 250%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그리고 잘 알게 된 조직을 돕기 위해 기부한다.
11	대만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하기보다 스스로 사회활동을 한다. 기업의 미션에 맞는 이슈에 따라 기업이 움직인다. 가장 뜨고 있는 이슈는 '돌봄'이며,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어 비영리 섹터 근로자들이 '돌봄' 관련 일에 몰린다. 이로 인해, 다른 분야 활동가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12	태국	어린 세대일수록 SDO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고, 이들이 기업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기업 기부 또한 줄어들고 있다.
13	스리랑카	해외로부터 오는 기부금 감소와 경제공황이 SDO를 힘들게 하고 있다.
14	인도	CSR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기업이 2%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330만 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다. 사회적 Social stock exchange가 모금에 있어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15	베트남	인도,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기부 실정에 비해 베트남은 SDO를 위한 제도가 없어서 사회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해외 기부까지 상당히 줄어들었다. CSR, 제도, ESG가 없어서 큰 기업들은 사회활동을 '연습'하면서 INGO에 기부한다. 베트남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데, 기업과 정부도 SDO에 대한 신뢰도가 적다. 이 외,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16	중국	브랜드, 시장, 사회 안보가 떠오르고 있고, 정부는 필란트로피를 5개년 계획으로 두고 장려하고 있다. 큰 단체일수록 정부 지원이 적은 대신 모금 금액이 크고, 작은 단체일수록 정부 지원 금액이 크다.